

호주, 2007년 3분기 호주 및 세계 축산물수급 전망

권 오 복*

호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완화시킬 움직임이 있자 기존에 누렸던 자국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치즈, 버터 등 낙농제품의 세계적인 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는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의 일환으로 수출보조와 우유 생산쿼터를 줄여 낙농제품의 세계가격은 당분간 강세를 떨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호주 농업자원경제연구소(ABARE)가 발표한 쇠고기와 낙농제품의 호주 및 세계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쇠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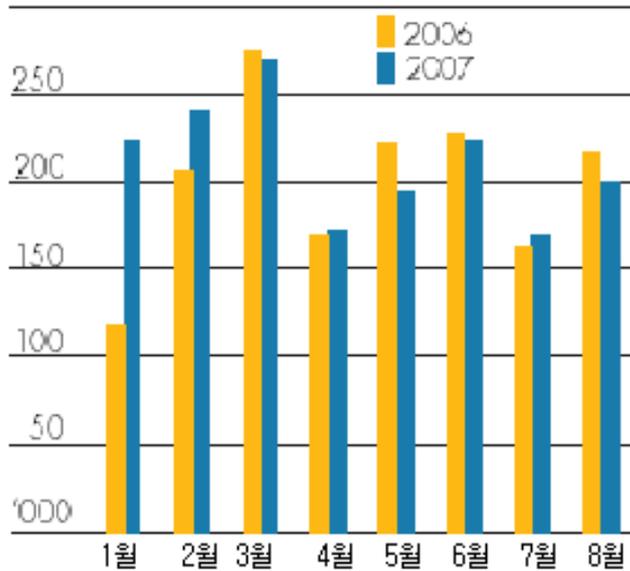
2007~08년 kg당 호주 소의 산지 가격은 전년보다 7% 상승한 3달러 12센트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산지 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쇠고기 생산은 감소하는 대신 기후조건이 양호하여 입식을 위한 가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요 수출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 수입은 일본과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바뀔에 따라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한국은 뼈 없는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는 수입조건이 바뀔 것이다. 다만 최근에 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bkwon@krei.re.kr 02-3299-4210

국산 쇠고기에서 뼈가 다시 발견됨에 따라 수입재개 결정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 상태이다. 2008년 상반기쯤 일본 쇠고기 수입제한조치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정물량의 쇠고기 수입선이 호주에서 미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호주 소 도축 두수



2007~08년 호주의 쇠고기 생산은 감소할 듯

2007~08년 호주의 소 도축두수는 860만 두로서 지난 6월 ABARE 전망치보다 4% 늘어났다. 겨울철과 이른 봄 여러 지역에서 기후조건이 좋지 않아 가축의 도축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7~08년 남은 기간 기후가 좋으면 도축 두수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도축두수는 목초지 상태와 사료 가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2007~08년 호주의 쇠고기 생산량은 도축두수 및 도체중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6% 감소한 210만 톤으로 전망된다. 2007~08년 6월 현재 호주의 소 사

육 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20만 두 증가한 2,800만 두로 예상된다. 송아지 두수의 감소와 5% 정도의 도축 두수 감소로 인해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

표 1 호주 쇠고기 전망

| | 단위 | 2005~06 | 2006~07 | 2007~08 ^f | 변화율(%) |
|------------------|---------|---------|---------|----------------------|--------|
| 가축 사육두수 | 백만 두 | 28.8 | 27.8 | 28.0 | 0.7 |
| 소 | 백만 두 | 26.1 | 25.1 | 25.4 | 1.2 |
| 도축두수 | 천두 | 8,401 | 9,081 | 8,600 | -5.3 |
| 생산량 | 천톤 | 2,077 | 2,226 | 2,096 | -5.8 |
| 수 출(선적물량) | | | | | |
| 대 미국 | 천톤 | 295 | 303 | 285 | -5.9 |
| 대 일본 | 천톤 | 388 | 403 | 380 | -5.7 |
| 대 한국 | 천톤 | 121 | 157 | 110 | -29.9 |
| 계 | 천톤 | 892 | 974 | 900 | -7.6 |
| 수출액 | 백만호주달러 | 4,272 | 4,634 | 4,573 | -1.3 |
| 생우 | 천두 | 549 | 638 | 680 | 6.6 |
| 가 격 | | | | | |
| 농가판매가격 | 호주센트/kg | 322 | 292 | 312 | 6.8 |
| 미국 수입가격 | 미국센트/kg | 276 | 282 | 292 | 3.5 |
| 일본수입가격 | 미국센트/kg | 430 | 477 | 485 | 1.7 |

f: ABARE 추정치

자료: ABARE

미국과 일본, 광우병 이후 수입조건에 대해 협상

2003년 후반 이래 일본이 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조치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많지 않다. 쇠고기 무역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일본이 취한 미국산 쇠고기 월령 제한 조치를 완화시키는 협상을 가진 바 있다. 협상의 목적은 현행 수입 가능한 미국산 소의 월령을 당초 21개월에서 30개월로 확대하는 데 있다. 미국 측은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사료 사용 금지조치, 감시 절차와 동물 식별 등과 같은 사항을 일본 측에 전달하였다. 일본 농림수산성과 보건성, 노동성 등이 미국소가 더 이상의 광우병 발병 위험이 낮아졌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08년 하반기까지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는 바뀔 것 같지 않다. 또한 수입조건을 바꾸기 전에 제안된 수정 사항은 일본의 식품 안전위원회가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론수렴, 과학적 위험평가, 소비자 의견의 청취 등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입 가능한 소의 월령 제한 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일본이 지난 6월 100% 전수 조사 원칙을 완화한 이래 다소 증가하였다. 당초 일본은 미국 측의 비용 부담 하에서 선적 전 검역을 요구해 왔는데 이는 수입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추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 발생이전 수준인 월 22,000톤보다 훨씬 낮은 월 2,000톤에 불과하다.

일본의 호주산 쇠고기 수요 감소 예상

미국산과의 경쟁 심화로 2008년 상반기 일본의 호주산 쇠고기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과 호주 쇠고기 생산이 감소할 것임을 감안할 때 호주의 대일본 쇠고기 수출은 6% 정도 감소한 38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비싼 곡물 사료비 때문에 일본으로 쇠고기 수출비용이 상승해 호주의 대일본 쇠고기 수출이 크게 증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호주 쇠고기는 주로 곡물을 급여한 것이다. 비육단계에 있는 호주 소의 두수는 2007년 2분기에 비해 8% 줄어들었다.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변할 듯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해서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의 검역관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8단계 위험평가를 마쳤다. 한국에서도 정부가 수입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2007년도 하반기쯤 바뀔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서 다시 뼈가 발견되어 수입제한조치의 완화 시기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수입조건 완화조치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한국은 2007년이 다가기 전에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갈비 생산이 미국이 비교우위를 지녔고 한국 소비자가 갈비를 매우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수출되던 일정부분의 호주산 쇠고기가 미국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7~08년 호주의 대한국 쇠고기 수출은 30% 정도 감소한 11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호주의 대미국 쇠고기 수출도 감소할 듯

2007~08년 미국의 쇠고기 생산은 암소 및 송아지 사육두수의 감소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소 사육농가가 건기 이후 재입식을 늘릴 것이기 때문에 도축 두수도 줄어들고, 그에 따라 쇠고기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미 우루과이에서도 암소 및 송아지 사육두수의 감소로 쇠고기 생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우루과이는 미국시장에서 호주와 쇠고기 시장을 놓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가이다. 우루과이의 쇠고기 생산은 전년에 비해 8% 감소할 전망이다. 그 결과 2007~08년 미국의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호주의 대미국 쇠고기 수출기회를 늘릴 것이다.

그러나 2007~08년 호주의 암소 도축두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쇠고기 생산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호주의 대미국 쇠고기 수출은 전년대비 6% 감소한 28만 5,000 톤에 그칠 전망이다. 수출가격은 4% 정도 인상돼 kg당 2달러 92센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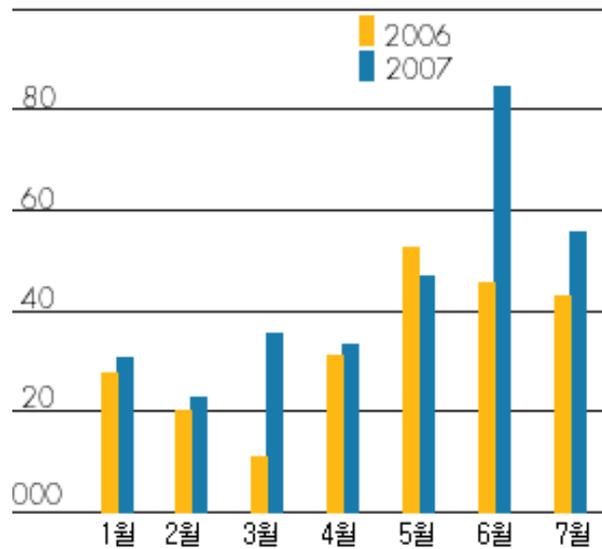
2007~08년 호주의 쇠고기 수출 감소할 듯

전체적으로 볼 때 2007~08년 호주의 쇠고기 수출은 주로 쇠고기 생산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8% 정도 하락한 90만 톤에 머물 전망이다. 그러나 수출액은 46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소 수출 증가 예상

호주의 생우 수출은 수출용 소 공급의 증가와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7% 정도 증가한 68만 두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가 생우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사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 호주 생우에 대한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07년 7월까지 호주의 대인도네시아 생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였다.

그림 2 호주의 대 인도네시아 소 수출



2. 낙농제품

낙농제품의 국제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호주 내에서 우유가공업자들이 우유를 확보하기 위해 조달가격을 높게 제시함에 따라 호주에서 우유 농가판매가격은 전년보다 30% 높은 리터당 43센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호주

의 많은 낙농가가 높은 가격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료 가격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띠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기후조건이 좋지 않고 물 공급에 문제가 있어 2007~08년 우유 생산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적인 수요 증가가 공급을 앞지를 듯

최근 몇 년간 세계의 낙농제품 수요는 개발도상국에서 소득 증대에 따른 수요 증가와 EU 및 미국 등 전통적인 낙농제품 소비국에서 수요 증대에 힘입어 증가일로에 있다. 낙농제품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낙농제품의 국제가격이 강세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국에서 공급제한으로 말미암아 2007~08년 세계 낙농제품 생산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EU에서 수출능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과, 호주에서 강우량이 부족하여 물과 사료가 부족하여 우유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우유의 세계 생산이 크게 늘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의 낙농제품 수출주체인 EU의 경우 역내에서 낙농제품 수요와 가격이 강세를 띠며 따라 2007년도 우유 생산은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CAP 하에서 책정된 쿼터와 비슷한 수준이다. EU 역내에서 낙농제품 그중에서도 치즈, 신선낙농제품과 우유의 소비증가가 역내 우유 생산 증가의 대부분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내에서 낙농제품의 생산증가를 능가하는 소비증가로 인해 역내 낙농제품 재고가 거의 바닥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낙농제품 재고가 바닥이 나고, 수출보조금의 철폐에 따라 2007~08년 EU의 낙농제품 수출은 미미한 증가에 그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EU 우유 생산량이 생산쿼터제를 실시함에 따라 감소할 것이고, 그에 따라 세계 낙농제품시장에서 EU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U 역내에서 낙농제품 소비 증가는 생산 증가의 대부분을 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역내에서 낙농제품 소비 패턴과 상대가격이 변함에 따라 EU 낙농제품

의 생산구조도 변할 것이다. 예를 들면 EU의 치즈 생산량은 최근 몇 년간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우유 생산 증가분의 상당부분이 치즈 생산에 이용되었다. 이와 같은 낙농제품의 수요 및 공급 패턴의 변화에 따라 분유와 같은 낙농제품을 생산할 우유가 감소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6~07년 EU의 분유 수출은 감소하였고 그 같은 추세는 2007~08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대신 치즈 수출은 증가세에 있다.

2007~08년 뉴질랜드의 우유 생산량은 국제가격의 강세와 젖소 사육두수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3%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가격의 강세에 불구하고 젖소를 늘리는 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낙농제품 생산과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뉴질랜드의 낙농산업 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토지 이용에서의 경합과 오폐수처리 문제 역시 단기간 내 낙농제품의 생산 증가를 제한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낙농농가 및 우유가공공장들의 신규 투자 확대로 최근 몇 년간 아르헨티나의 우유 및 낙농제품 생산은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투자로 말미암아 낙농제품 수요가 강세를 띠는 가운데 주요 낙농제품 수출국들의 공급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현재 세계 시장상황에서 아르헨티나는 낙농제품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심각한 기후 조건(4월의 홍수와 6월 및 7월의 서리 등)으로 인해 낙농제품 생산과 수출 전망이 밝은 편이 아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출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펴며 따라 아르헨티나의 낙농제품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낙농제품 가격 가파른 상승 전망

2007~08년 주요 낙농제품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는 공급 증가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강세를 떨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낙농제품의 세계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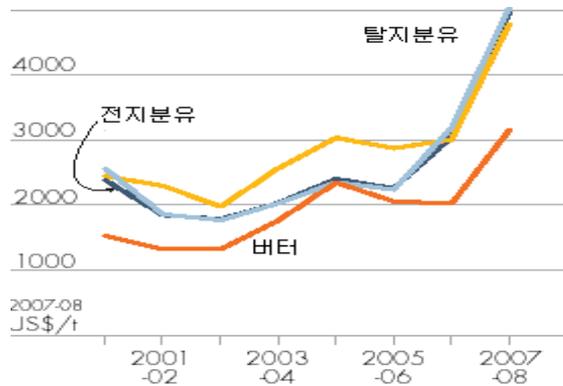
2007~08년 분유가격은 특히 강세를 떨 것으로 예상된다. 탈지분유 및 전지분유의 가격은 전년대비 각각 58%, 63% 상승하여 톤당 5,030달러, 4,950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에서 분유 수요 강세와 생산 및 재고 감소에 따라 EU의 분유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세계의 분유의 수입수요, 특히 아시아와 중동에서 유아용 분유와 식품가공 수요는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EU 내에서는 소비 증가의 대부분은 식품가공과 가축 사료의 단백질보조물질에서 비롯된다.

다른 대부분의 낙농제품과 같이 2007년 치즈 가격은 이미 상승했는데 2007~08년 치즈 가격은 전년대비 59% 높은 톤당 4,775달러로 예상된다. 이처럼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것은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EU 내에서 치즈 소비 증가와 CAP 개혁의 일환으로 수출보조금의 감축으로 EU의 2007~08년 치즈 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이다.

버터 가격도 세계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늘어나 2007~08년보다 56% 높은 톤당 3,150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경우 버터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버터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2007~08년 수출은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3 세계의 낙농제품 가격 전망



2007~08년 호주의 낙농제품 생산 감소할 듯

2007~08년 호주의 우유 생산은 2006~07년에 지속된 심각한 한발로 인해 전년대비 4% 감소한 92억 3,000만 리터에 그칠 전망이다. 가뭄 피해가 심했던 일부 지역 낙농가들은 늘어나는 사료비에 대응하기 위해 젖소 사육두수와 우유 생산은 줄였다.

2006~07년 가뭄 피해가 극심했던 낙농생산지역은 북부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즈, 퀸즈랜드 남부 지방이다.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일부 지역에서도 가뭄 피해가 상당했다. 반면에 뉴사우스웨일즈와 타스메니아의 해안 지역은 기후조건이 양호한 편이었다.

2007~08년 호주의 우유 생산은 강우 패턴과 목초지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호주의 낙농지역 중 많은 지역에서 비가 어느 정도 왔지만 관개에 의존해야만 하는 지역의 물 사정을 호전시키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기후조건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목초 공급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절기 곡물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목초 공급 사정이 호전되어 낙농제품의 세계 가격이 높은 시기에 호주의 우유 생산이 증가할 수 있다.

관개수의 관점에 볼 때 가장 취약한 지역은 머레이 달링(Murray Darling) 유역이다. 이 지역은 낙농가 대부분이 관개에 의존하는데 댐의 물이 채워지려면 앞으로 몇 년간 평년 수준 이상의 비가 내려야한다.

표 2 호주 낙농 전망

| | 단위 | 2005~06 | 2006~07 | 2007~08 ^f | 변화율(%) |
|-------------|---------|---------|---------|----------------------|--------|
| 젖소 사육두수 | 천두 | 1,870 | 1,800 | 1,780 | -1.1 |
| 우유 수량 | 리터/두 | 5,390 | 5,324 | 5,183 | -2.6 |
| 생 산 | | | | | |
| 우유 계 | 백만리터 | 10,089 | 9,583 | 9,225 | -3.7 |
| 시판 | 백만리터 | 2,066 | 2,161 | 2,197 | 1.7 |
| 가공 | 백만리터 | 8,023 | 7,422 | 7,028 | -5.3 |
| 버터 | 천톤 | 143 | 130 | 131 | 0.8 |
| 치즈 | 천톤 | 373 | 360 | 331 | -8.1 |
| 전지분유 | 천톤 | 158 | 143 | 143 | 0.0 |
| 탈지분유 | 천톤 | 212 | 191 | 198 | 3.7 |
| 우유가격 | 호주센트/리터 | 33.1 | 33.1 | 43.0 | 29.9 |
| 수출액 | 호주백만달러 | 2,574 | 2,444 | 3,156 | 29.1 |
| 세계가격 | | | | | |
| 버터 | 미국달러/톤 | 1,998 | 2,023 | 3,150 | 55.7 |
| 치즈 | 미국달러/톤 | 2,792 | 3,004 | 4,775 | 59.0 |
| 탈지분유 | 미국달러/톤 | 2,175 | 3,188 | 5,030 | 57.8 |
| 전지분유 | 미국달러/톤 | 2,192 | 3,046 | 4,950 | 62.5 |

f: ABARE 추정치

자료: ABARE

2007~08년 우유 농가판매가격 급격히 상승할 전망

2006~07년 호주 우유의 리터당 농가판매가격은 평균 33센트였다. 2007~08년에는 이보다 30% 높은 리터당 43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전망은 낙농제품의 세계 가격이 강세를 띠고 기후조건의 열악에 따라 사료 가격의 상승 하에서 우유를 확보하기 위해 낙농품가공업자들이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한 것이다.

2007~08년 호주 낙농제품 수출액 증가할 듯

2007~08년 호주의 낙농제품 수출액은 수출물량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낙농제품의 세계 가격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보다 29% 증가한 32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2007~08년 호주의 탈지분유 수출액은 전년보다 36% 증가한 6억 8,800만 달러, 탈지분유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4억 3,700만 달러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호주의 치즈 수출액은 전년보다 59% 증가한 10억 달러, 카세인(casein)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1억 6,1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버터 수출액은 1억 7,800만 달러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Frank Drum, "Beef and Veal", Australian Commodities, Vol. 14, No.3, September Quarter 2007

Peter Berry, "Dairy," Australian Commodities, Vol. 14, No.3, September Quarter 2007